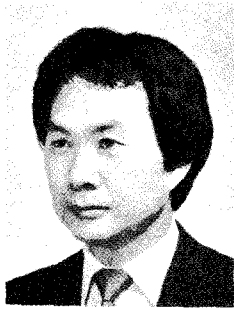

원화절상이 양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찬길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1. 환율이란

우리가 흔히 상점에서 닭고기나 계란을 사려고 할 때 우리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고 점포주인은 우리돈을 받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두 우리돈으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상품을 사려고 하면 우리돈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은행에 가서 우리돈을 달러(U\$)나 엔(圓)화로 바꾸어 상품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받은 달러나 엔화로 종업원의 급여를 주고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우리돈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외국돈과 우리돈과의 교환이라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돈사이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이란 이와같이 외국돈과 우리돈을 바꿀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말하고 이 환율에 따라서 국가간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교환비율은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환율은 수시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돈의 대외적가치가 변동되는 것들의



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대미국달러화 환율이 1달러당 700원에서 650원으로 변동하였다면 우리는 흔히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을 원화절상 또는 환율인하(換率引下)라고 한다. 한편 대미달러환율이 미화 1달러당 700원에서 750원으로 변동하였다면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달러에 대한 우리돈의 가치는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율상승을 환율인상(換率引上) 또는 원화절하라 한다.

이와 같은 환율은 경상수지, 물가, 나라간의 금리차(金利差), 외환거래자의 예상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 외에 전쟁, 천재지변, 정치적 불안정 여부 등에 따라서도 변동한다.

2. 환율변동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환율인하 즉 원화가 절상되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수입물가가 하락

하여 국내물가가 내려가며 또한 외국돈을 빌려쓰고 있는 국내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좋은 점도 발생하게 된다.

원화가 절상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수출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수출품목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만들기 어려운 상품보다는 제작이 용이하고 노동집약적인 경쟁이 치열한 수출품의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출경쟁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업자가 경쟁력유지를 위해 원가절감을 통해 수출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의 절상폭이 원가절감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져서 수출업자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여건이 어렵게 된다.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인하폭 만큼 수입상품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수입상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내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동일 국산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원가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내 판매물가가 떨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원료중에서 원유, 원목, 원피, 옥수수 등 수입원자재의 투입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많은 외국빚을 지고 있는데 환율이 내리면 차관기업체에게는 그만큼 외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원가를 절감시켜 일반소비자들에게 싼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율변동은 경제여러분야에 이해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은 가능한 한 중립적 효과를 지니도록 하고 실세를 반영시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원화절상이 양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88년의 원화절상은 예상보다 빨라 원화는 12월15일 현재 무려 15.7%나 절상된 달러당 684원60전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작년의 절상을 보여 환율이 상반기말에 달러당 635원, 연말에는 590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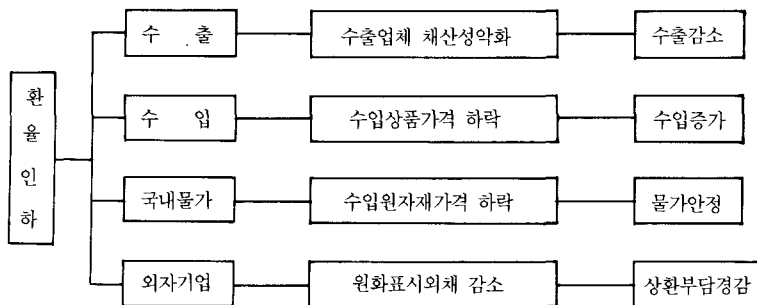
원화절상의 타격은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화절상은 특히 중소기업체를 강타하여 수출둔화, 채산성 악화, 경영난이라는 심한 몸살을 앓게하고 있다. 경상이익율이 악화되고 적자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저부가가치업종이면서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원화절상의 대처방안은 절상율만큼 수출가격에 전가하거나 원가절감 등으로 자체흡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988년의 경우 원고를 감안하여 수출가격을 15%이상 올려야 하나, 그동안 겨우 8%정도만 반영되어 적자수출로 채산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갑자기 형성된 노임상승으로 원가절감면에서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여 기업자체의 흡수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화절상의 실제적 파급영향은 금년 하반기부터 수출격감,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원화절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복대책

으로 관세율 인하, 수입감시제 폐지 등 시장개방, 수입금융확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2천억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원화절상이 양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때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은 대미수출지향산업이 아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재생산이 위주이고 외채의존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가격상승에 의한 수출감소라던지 외채상환이자절감의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수입면에서 보면 수입원자재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가 절상된만큼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당연히 수지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화절상에 대한 극복대책으로 정부는 관세율인하와 수입감시제를 폐지하고 시장개방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전면수입개방압력에 의한 축산물수입이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화절상은 수입양계산물의 국내시판가격을 관세장벽이 없는 한 매우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계산물은 생산원가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수입양계산물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따라 생산기반이나 경영구조가 취약한 부업적 영세양계농가는 물론 전기업양계농가들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산업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림1) 환율인하(원화절상)의 효과

원화절상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원자재의 이용면에서 보면 수입사료원료를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배합사료는 대미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입옥수수가 주원료이기 때문에 원자재인 옥수수의 경우 원화절상율이 15%만큼 수입원가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는 당연히 국내 시판 배합사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사료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했고 금년에도 당연히 이루어져 국내 양계농가의 생산원가절감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의 양계용 배합사료의 공장도가격과 1988년 6월까지의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원화절상에 인한 환율저하율이 15%나 되었고 옥수수구매가격도 금년하반기까지는 종전 100달러선에 구입한 옥수수를 사용하였는데도 양계용 배합사료의 공장도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양계용 배합사료의 1kg당 공장도가격을 보면 1987년에 큰병아리용 150.5원, 산란말기용 157.3원, 육계전기용 217.1원 이었던 반면 1988년 6월까지의 평균가격은 각각 152.4원, 157.3원, 217.8원으로 오히려 상승되어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인하로 인한 원가절감효과가 반영되고 있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환율 및 주요상품가격변동에 따른 도매물가 파급효과」에 따르면 원화가 10%절상될 경우 원자재 등 수입가격인하효과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물가는 도매기준 3.6%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988년에 원화절상율이 15%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한은이 분석한 3.6%보다 훨씬 큰 폭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하락되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동폭이 반영되었다면 육계생산비 가운데 사료비의 비중이 69%, 산란계는 64%나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채산성의 개선과 경영안정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총배합사료 생산량 가운데 양계용이 32%나 되므로 환율인하에 의한 원가절감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산업전체에 거대한 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유추된다.

양계산업은

수출지향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재 생산 위주이고 원자재의 대의존산업이기 때문에 원화절상폭 만큼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원화절상의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축산물 수입개방이 예상되어 더욱 쎄가격의 외국산물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원화절상이 양계산물의 수출, 수입, 원자재원가절감, 외채수준여부 등에 따라 양계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충격요인들이 관련산업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계산업 특히 육계산업은 커다란 충격을 받지않을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닭고기는 소비, 요리, 선호면에서 쇠고기에 가장 불리하고 돼지고기의 다음으로 처진다. 따라서 쇠고기가 홍수수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시장을 잠식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돼지고기 역시 가공품이 자유로이 수입시판되면 닭고기의 시장을 대체잠식하게 되고 닭고기수요가 위축되어 양계산업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양계산업은 원화절상에 따른 직·간접 부정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대처하여 산업안정기반을 굳게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계산업내부에서도 조직·집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거양할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적 계열화를 달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은 물론 관련산업까지도 직접 참여하여 각종 부가가치를 생산자의 수중으로 최대한 환원시켜야함은 물론 시설의 근대화를 통한 생산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꾸준한 소비촉진으로 수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양계**